

타이완

관광 격월간 2026 Jan-Feb.

no.64

COVER STORY

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

과거와 현재의 도시, 자이(嘉義)

철도의 역사와 하카 문화를 만나다

타이완의 최고급 골프장 네 곳

한국-타이완 직항 완전 정복

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

TAIWAN
WAVES OF WONDER



2026 TAIWAN LANTERN FESTIVAL IN CHIAYI

3.03^{TUE} - 3.15^{SUN}

光耀台灣·點亮嘉義



地點 嘉義縣政府前廣場



TAIWAN
WAVES OF WONDER



Table of Contents



특집 기사

02 Cover Story 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



Cover Story

18 모든 도시에는 이야기가 있다 자이 평범하고 익숙한 도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다

24 특집 기사 철도와 하카 (客家) 마을이 만나는 지점. 철도 기억을 따라 걷는 하카 산성 문화 산책

28 특집 기사 나이스 샷! 타이완의 최고급 골프장 네 곳을 둘러보다

30 농칠 수 없는 맛 가장 맛있는 오리 요리



34 내가 보는 한국 - 타이완 타이완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것

36 타이완 키워드 한국 - 타이완 직항 완전 정복

38 한국 - 타이완 핫이슈 완행 열차만 서는 작은 마을 : 타이완 작가 천쓰홍의 『귀신들의 땅』을 찾아서

41 타이완 · 풍경 · 시 사랑의 강

42 FOUNTAIN 신활수 (新活水) 누구나 카라오케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는 곳 : 가오슝 쥐잉 용호탑 (龍虎塔)



모든 도시에는 이야기가 있다

창간일시 2012년 5월
발행호수 64
발행일자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대만관광협회 (台灣觀光協會) 회간
회장 / 발행인 簡余晏
명예회장 葉菊蘭
부회장 蘇成田、凌瓏、莊豐如
편집고문 鍾逸寧、陳婷妤、張仲宇、劉宇庭
발행 재단법인 대만관광협회
주소 타이베이 중사오동로 4 단 285 호 8F-1
TEL 886-2-2752-2898 FAX 886-2-2752-7680
E-mail yasir@tva.org.tw WEB www.tva.org.tw

발행처 故事 StoryStudio
총편집 涂豐恩
총감수 형소진
편집장 김이삭
기획 楊琇茹
편집 협력 林立文、劉雅涵
번역 台灣北菱股份有限公司、陳品芳、김혜진
교정 陳佳纓
디자인 李世斌、ziyin
프로젝트 매니저 冉揚、林宛蓁
주소 타이베이시 다둥구 청더로 1 단 8 호 7 층 1 실
TEL 886-2-2369-5966
E-mail contact@storystudio.tw
https://storystudio.tw/

대만관광협회 서울사무소 (교통부 관광청)
주소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 번지 경기빌딩 9 층 902 호
TEL 82-2-732-2357~8 FAX 82-2-732-2359
E-mail taiwan@tourtaiwan.or.kr
WEB www.tourtaiwan.or.kr

대만관광협회 부산사무소 (교통부 관광청)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72 907 호
TEL 82-51-468-2358 FAX 82-51-468-2359
E-mail busan@tourtaiwan.or.kr
WEB www.taiwantour.or.kr

인쇄 經緯印藝實業有限公司
판매가 NT\$180
ISSN 3080-3462



中華郵政北台字第 1866 號 執照登記為雜誌交寄



타이완관광청



FB 타이완홀릭



IG @taiwanholic_kr

COVER STORY

차 한 잔에 담긴 타이완

Part 2

타이완섬의 다산 (茶山) 기행 ⁽⁰⁶⁾

3 대 다산과 3 대 클래식 타이완 차

Part 1

타이완 차 (茶) 의 정석 ⁽⁰⁴⁾

타이완 사람들에게 차 (茶) 는 단순히 갈증을 달래는 음료가 아닙니다. 타이완의 일상과 문화가 깊이 우려난, 삶 그 자체다.



장소 리스트

Part 3

타이완 차의 탐험,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 ⁽¹⁴⁾

Part 4

차를 담은 일상, 현대 다석(茶席)의 우아한 멋 ⁽¹⁶⁾

손님을 맞이할 때 정성스레 차를 내어 대접하는 것은 물론,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곁엔 늘 차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를 가질 때, '서우야오차(手搖茶, 셰이커로 흔들어 만드는 타이완식 차 음료)'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뜨겁든 차갑든, 달든 달지 않든, 취향은 달라도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 타이완의 차는 각종 요리나 디저트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변화한 도심이든, 고즈넉한 산이든, 발길 닿는 곳 어디서나 찻잔에 담긴 타이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타이완 차 (茶) 의 정석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타이완 차 가이드



발효도 (發酵度) 에서 시작하는 , 나만의 타이완 차 취향 찾기

타이완 차는 차의 종류만 많은 게 아니다. 차 계열, 차나무 품종, 제다 (製茶, 차 제조 기술) 기술, 생산 지역 등 심오하면서도 방대한 지식을 요한다. 때문에 타이완 차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며 다양한 타이완 차 제품들 사이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 지 망설이게 된다. 사실 타이완 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즉 비발효차, 완전발효차, 그리고 부분발효차 (혹은 반발효차) 로 나눌 수 있다. 비발효차와 완전발효차는 육대 다계 (六大茶系) 중 녹차와 홍차에 해당하며, 부분발효차는 '청차 (靑茶)' 계열로, 우리에게 익숙한 '우롱차 (烏龍茶)' 라 불린다. 우롱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포종 (包種), 고산우롱 (高山烏龍), 동방미인

(東方美人), 홍우롱 (紅烏龍) 등 대중적인 차 종류로 다시 세분화된다. 타이완 차의 체계가 아직 낯선 초보자라면, 발효도부터 이해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풍미를 먼저 찾은 다음, 차나무 품종이나 생산 지역 등 심화된 단계로 점차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비발효차, 즉 녹차로는 술에서 뛰어난 향과 녹차 특유의 감칠맛 (旨味) 이 일품인 신베이 산샤 (三峽) 지역의 '벽라춘 (碧螺春)' 이 가장 유명하다. 완전발효차인 홍차의 대표 주자는 닛토 (日東) 홍차의 발원지인 난터우 (南投) 위츠 (魚池) 의 '홍옥홍차 (紅玉紅茶)' 다. 타이차 (台茶) 18 호 '홍옥' 품종으로 만들어지며, 민트와 시나몬이 어우러진 독특한 품종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는 홍차 마니아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특별한 풍미다. 아울러 화롄 (花蓮) 의 '밀향홍차 (蜜香紅茶)' 역시 이름처럼 은은한 꿀 향과 깊고 부드러운 풍미로



글 / 린웨이징 (林蔚靜) 사진 / 장지취안 (張紀諺)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차인 홍우룡(紅烏龍)을 추천한다. 난터우(南投) 루구(鹿谷)의 '동정우룡'은 일본의 호지차(焙茶)와 풍미가 유사한 구수한 배화향이 특징이다. 최근 타이둥 루예(鹿野)에서 개발된 '홍우룡'은 우롱차의 향과 홍차의 진한 맛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그 독특한 매력으로 근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를 찾았다면, 이제 다양한 차나무 품종의 차를 탐색해 볼 차례다. 난초를 닮은 청아한 향의 '청심우룡(淸心烏龍)', 부드럽고 따뜻한 밀크 향이 매력적인 '금훙(金萱)', 자스민과 치자꽃향을 담은 '사계춘(四季春)', 그리고 옥란화(玉蘭花) 향을 머금은 '취옥(翠玉)'까지. 각기 다른 품종의 차나무가 다양한 발효도의 제다 기법과 산지 등 여러 요소와 결합되면서 천의 얼굴을 지닌 풍미를 빚어낸다. 이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맛의 스펙트럼이 타이완 차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다.

타이완 차 체험 : 시음부터 산지 기행까지

타이완 차에 입문하는 초보자라면, 커피를 처음 접할 때 블렌딩 원두부터 시도하는 것처럼 상품화된 '블렌디드 티'로 타이완 차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이완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졌다면, 싱글 오리진 원두를 맛보듯 산지별 단일 품종 차의 풍미를 비교해 보는 단계로 넘어가도 좋다. 타이완 차의 매력은 단순히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타이완 사람들의 일상 속에는 어디에나 차가 존재한다. 차를 활용한 요리와 디저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다도 공간과 차품평회, 그리고 차 산지에서 직접 경험하는 제다(製茶) 체험과 문화 체험까지, 타이완 차의 세계는 여행자가 발을 들일수록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타이완섬의 다산 (茶山) 기행

3 대 차산 × 3 대 클래식 타이완 차

차 한 잔에는, 대지가 품어낸 자연의 선물과 사람의 정성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타이완은 독특한 지형과 기후 덕분에 섬 전역에 차 산지가 고루 분포해 있고, 다양한 토양과 해발 고도는 차 종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제다(製茶) 기술 또한 타이완 차의 맛과 풍미를 백화제방(百花齊放)하게 만들었다. 북부의 청심포종(靑心包種), 중부의 홍옥홍차(紅玉紅茶), 남부의 금훤우롱(金萱烏龍) 등 대지가 빚어낸 차의 내음과 여운은 여행에 특별한 운치를 더하는 것은 물론, 어쩌면 다음 여행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핑린 (坪林) × 심포종 (靑心包種)

도심 여행자의 선택,
고요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포종차의 청아한 기운

타이완 북부 산간 지역에 자리한 핑린(坪林)은 예로부터 '차의 고향'으로 불려왔다. 이곳의 차 재배 역사는 청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따뜻하고 습한 기후와, 산봉우리를 휘감는 안개 덕에 천지의 정기를 머금으며 자라난 차나무는 이 땅만의 독특한 풍미를 품게 되었다.

해발 200 - 650m

타이완 고유의 제다 (製茶) 공법

핑린을 대표하는 차 품종은 단연 '청심우롱(靑心烏龍)'이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향, 그리고 생기 넘치는 풍미를 지닌 이 품종은 은은한 꽃향이 특징인 포종차(包種茶)로 가공하기에 더없이 적합하다. '포종차'는 타이완 고유의 제다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차다. 찻잎은 가늘게 꼬인 형태로, 경발효 특성 덕분에 찻물은 맑고 투명한 비취빛에 황금빛이 감도는 밀록색(蜜綠色)을 머금는다. 은은한 난초 향과 열은 과일 향이 어우러져 우아한 층위(層次)를 이루고, 감미롭고 부드러운 여운이 입안에 길게 남는다. 차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는, 잊을 수 없는 향기다.



핑간궈 (坪感覺): 문화와 연결된 핑린의 맛

'핑간궈 (坪感覺)'는 핑린구청 건너편에 자리한 백 년 역사의 석조 고택 (石頭厝)을 개조한 공간이다. 이곳은 단순히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곳을 넘어, 엄선된 셀렉션부터 메뉴 구성에 이르기까지 핑린의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미각에서부터 가슴 속까지, 핑린의 독특한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타이완 남부에서 나고 자란 가게 주인 아더 (阿德)와 시엔시엔 (嫻嫻). 이들이 핑린과 인연을 맺게 된 건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차 마을 조사를 하던 중 핑린의 어르신들, 오래된 가게 주인들과 신뢰와 정을 쌓게 되었고, 결국 이곳에 터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2013년 여름, 두 사람은 그들이 바라본 핑린의 매력을 더 많은 여행자와 나누기 위해 이 고택을 임대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핑린의 인문, 산업, 자연을 하나로 잇는 공간을 만들었다. 1층은 기념품점으로, 지역 소농 (小農)들의 다양한 생활 잡화를 판매한다. 2층은 레스토랑 공간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가 주를 이룬다. 차 향을 더한 루콩로우 (滷控肉), 돼지고기 간장조림)와 차향반 (茶

香飯), 현지 두부로 빚은 함박스테이크, 그리고 포종차로 풍미를 살린 디저트 등이 대표 메뉴이다. 이 밖에도 예술 전시와 문화 행사를 비정기적으로 열어 여행자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핑린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핑간궈 (坪感覺)

📍 新北市坪林區坪林街 12 號
신베이시 핑린구 핑린제 12 호
🕒 11:00~17:00 (월 / 화요일 휴무)



공식 웹사이트



먹거리 추천! 핑린 차귀 (茶粿)

일반적으로 차오쯔귀 (草仔粿)는 대개 서국초 (鼠麴草)나 쑥을 넣어 향을 더하지만, 핑린의 차귀는 현지 포종차와 녹차를 곱게 갈아 찹쌀 반죽에 넣고, 묵은쌀로 빚어낸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차 향이 일품이다. 속 재료는 무채, 짬조름한 토란, 팔 등 세 가지 비건 맛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핑린에 들른다면 이 특별한 맛을 꼭 한번 맛보길 권한다.

더즈 다원 (德志茶園)

📍 新北市坪林區北宜路八段 235 號
신베이시 핑린구 베이이로 8 단 235 호
🕒 08:00-18:30



Facebook

5 대째 이어온 포종차 장인

핑린의 차밭 면적은 타이완 전체의 약 5%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 인구의 80% 이상이 차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대로 이어온 소규모 전통 다원 (茶園)들이다. 그중 '백청장 차작방 (白靑長茶作坊)'은 5 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온 대표적인 차 공방이다. 현재 5 대째 제다 장인으로 활약 중인 린 (林) 씨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차잎에 파묻혀 자랐지만, 오랫동안 차 재배에 대한 거부감을 품고 있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업을 잇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차 재배와 제다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 브랜드명 '백청장 (白靑長)'은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왔을 뿐만 아니라 '청 (靑)' 심우롱의 맑고 순수함과 차잎을 가늘게 꼬아 '장 (長)' 형태로 만든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이는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진 제다 기법이다.

백청장차작방은 오늘날까지도 소량 생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채엽 시기가 되면 차농 (茶農)들은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 전 차밭으로 들어가 '일심이엽 (一心二葉)'을 손으로 직접 따낸다. 이렇게 수확한 차잎은 유념 (揉捻), 발효, 배화 (烘焙) 등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풍부한 꽃향과 섬세한 풍미를 지닌 포종차로 다시 태어난다.

린 (林) 씨 형제는 차를 만드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핑린의 차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젊은 차농들과 손잡고 '핑린청년 차업발전협회 (坪林靑年茶業發展協會)'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차잎 판매는 물론, 다예 (茶藝)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여행자들이 핑린 차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백청장차작방 (白靑長茶作坊)

📍 新北市坪林區漁光里坪雙路二段 18 號
신베이시 핑린구 위광리 평쌍로 2 단 18 호
🕒 09:00~17:00
☞ 포종차 (包種茶), 동방미인 (東方美人)



공식 웹사이트

해발 800m

난터우 위츠 (南投魚池) × 홍옥홍차 (紅玉紅茶)

역사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홍차의 풍운 (風韻)

타이완 홍차의 역사는 유구하다. 1925년, '아삼(Assam) 홍차'가 타이완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재배 적지를 찾아 섬 전역을 누빈 끝에 낙점된 곳이 바로 난터우(南投) 위츠향(魚池鄉)의 르웨탄(日月潭) 지역이었다. 해발 고도와 지형, 연중 기온과 습도가 인도 아삼 지방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 대엽종(大葉種) 찻잎의 핵심 재배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곳만의 독특한 테루아르는 세계 어느 산지에서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향과 풍미를 빚어냈다.

타이차 18호, 타이완만의 맛

그러나 국제 차 시장의 수요 변화와 오랜 기후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타이완은 독자적인 풍미와 높은 품질을 갖춘 새로운 차 품종 개발에 나서야 했다. 이에 위츠향에 위치한 타이완차업개발장(台灣茶業改良場)은 1999년, 마침내 신품종 '타이차 18호(台茶18號)'를 공식 발표했다. '홍옥홍차(紅玉紅茶)'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차는 진한 시나몬과 민트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찻물은 맑고 선명한 적갈색을 띤다. 풍부하면서도 층위가 뚜렷한 맛 덕분에 홍차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완 홍(台灣紅)', '타이완 향(台灣香)'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선보인 타이차 21호 '홍운홍차(紅韻紅茶)'는 자몽꽃의 꿀 향과 잘 익은 과일 향이 감도는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마시는 한 잔의 차



타이완 홍차의 발전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 '르웨라오차창(日月老茶廠)'이라 불리는 위츠차창(魚池茶廠)은

1959년에 설립되었다. 수차례의 전환과 개편을 거치며 한때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 폐쇄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 지금은 위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르웨라오차창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간다. 찻잎 채취와 제다 작업은 물론, 문화와 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소박한 외관 속 숨은 제다 고수 — 창지차에 (莊記茶業)

르웨라오차장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창지차에 (莊記茶業). 평범해 보이는 조립식 건물은 자칫 지나치기 쉬우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벽면 가득 걸린 찻잎 품평대회 특등상 현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수많은 수상 이력이 바로 이곳 차의 품질을 명확히 말해준다. 놀라운 것은 제다사 창룽푸 (莊鎔璞)의 이력이다. 사실 제다와는 전혀 무관한 길을 걷다가 뒤늦게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 2012년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한 그는 제다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독학으로 익혔다. 품질에 대한 변함없는 고집과, 입소문을 타고 한 잔 한 잔 쌓여 간 손님들의 신뢰가 오늘의 창지차예를 이루었다. 수차례의 품평대회 수상은 그 노력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다.

창지차예의 찻잎은 여전히 자체 생산, 자체 판매 방식을 고수한다. 포장지마다 적힌 글씨는 아버지 창스파 (莊世發) 씨가 직접 남긴 글이다. 한편, 창룽푸는 차를 만드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다석 (茶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창지다실 (莊記茶室)’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일본식 다다미 위에서, 의례화된 다도 체험을 통해 차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차 문화의 세계로 이끌어 주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담긴 곳이다.

창지차에 (莊記茶業)

📍 南投縣魚池鄉通文巷 5 之 3 號
난터우현 위츠향 통원항 5-3 호
🕒 09:00-18:00



창지차에
Facebook



창지다실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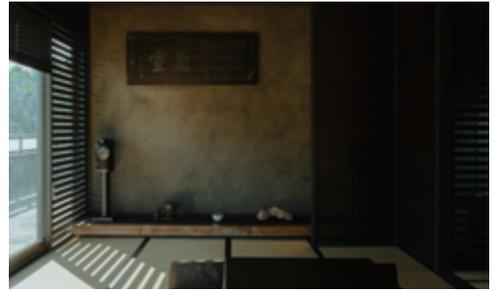
거듭났다. 차 공장 내부에는 옛 시대의 제다 설비와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타이완 홍차 생산의 초기 역사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드라마 < 차금 (茶金) >의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을 거닐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역사의 흔적이 커켜이 쌓인 공간에서 차 한 잔을 음미하고, 간단한 먹거리를 즐긴 뒤, 세월의 깊이가 담긴 찻잎 한 봉지를 품에 안고 돌아가 보자.

르웨라오차장 (日月老茶廠)

📍 南投縣魚池鄉中明村有水巷 38 號
난터우현 위츠향 중밍촌 유수이항 38 호
🕒 08:00-17:00
👍 홍옥홍차 (紅玉紅茶), 홍운홍차 (紅韻紅茶)



공식 웹사이트



르웨탄 필수 먹거리! 홍차 차예단 (茶葉蛋)

르웨탄 현지 홍차와 향신료를 넣어 끓여낸 차예단 (茶葉蛋, 차계란)은 독특한 차 향과 깊은 맛을 지니고 있다. 따뜻한 차예단을 손에 들고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르웨탄을 찾는 이들에게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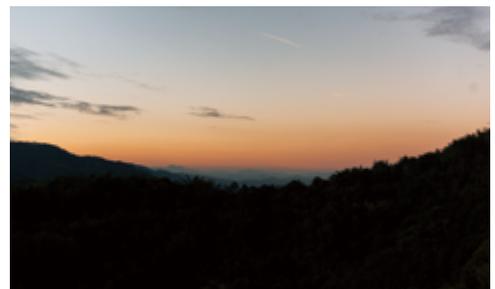
HOHOCHA 喝喝茶 (허허차)

📍 南投縣魚池鄉魚池村魚池街 443-36 號
난터우현 위츠향 위츠제 443-36 호
🕒 09:00-17:00



공식 웹사이트

환상적인 노을을 감상하며 즐기는 특별한 티 캠페일



Hotelday Sun Moon Lake (潭日月) 호텔 루프탑에 자리한 텐서우거 (天首閣)는 270도 이상의 탁 트인 호수 전망을 자랑한다. 해 질 무렵이면 석양에 물든 호수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현지 차 음료와 역사 문화 요소를 결합한 창의적인 캠페일을 선보이는 이곳은 르웨탄 일대 최초의 티 캠페일 테마 바로 주목을 받고 있다.

텐서우거 Tenshubar Black Tea & Tea Liquor Tasting Laboratory, 天首閣—紅茶·茶酒試驗所

📍 南投縣魚池鄉中正路 58 號
난터우현 위츠향 중정로 58 호 (Hotelday Sun Moon Lake 潭日月 RF)
🕒 16:00-23:00



공식 웹사이트

해발 1300m

자이 아리산 (嘉義阿里山) × 금훤우롱 (金萱烏龍)

밀크 향과 꿀 향이 감도는 고산 차의 고장으로

아리산 (阿里山) 은 웅장한 운해 (雲海) 와 신목 (神木) 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곳이다. 그러나 아리산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훤우롱, 산림의 기운을 머금은 부드러운 품미

20 세기 초, 아리산 지역은 천혜의 고산 환경과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덕분에 타이완을 대표하는 고산차 산지로 자리 잡았다. 차밭은 대부분 해발 1,000~1,600m 사이에 분포하며, 낮에는 햇살이 충분히 내리쬐지만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구름과 안개가 산자락을 감싼다. 일교차가 큰 환경은 차나무의 성장을 늦추고, 그 덕에 차잎은 더 많은 영양분을 천천히 흡수하여 조직이 치밀해지며 여린 싹을 틔운다. 이는 아리산 고산차가 특유의 깊은 맛을 지니게 된 비결이다.

그중에서도 대표 품종인 '금훤 (金萱, 타이차 12 호)' 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밀크 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안정적이어서 금세 고산차 산지의 주력 품종으로 떠올랐다. 특히 우롱차로 가공했을 때 그 진

가가 드러나는데, 부분 발효 제다법이 차잎 본연의 향과 맛의 층위를 충분히 끌어내면서도 청아한 단맛과 깊이를 함께 살려준다. 차물은 황금빛이 도는 연녹색을 띠며, 적절한 위조 (萎凋) 와 발효, 배화 과정을 거쳐 위장에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차 한 잔 후, 걸어볼까 OR 차 향 머금은 숲길 산책

차를 음미하는 것 외에도, 차밭과 숲속을 잇는 ‘산책로’야말로 이 고장을 탐험하는 가장 여유롭고 특별한 방법이다. 이른 아침을 둘러싼 구름과 안개, 일출을 물들이는 노을빛, 자욱한 오후의 운무까지, 느긋한 발걸음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리산의 풍경을 느껴보자.



터푸에 산책로 (特富野步道)

아리산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 산책로 중 하나로, 총 길이 약 1.1km, 왕복 약 2km 코스다. 터푸에 고도 (特富野古道)와 달리 경사가 심하지 않고 평탄하여 걷기 쉽다. 출발점은 다방 현수교 (達邦吊橋)이며, 완만한 경사를 따라 걷다 보면 대나무 숲과 거대한 녹나무가 어우러진 다양한 생태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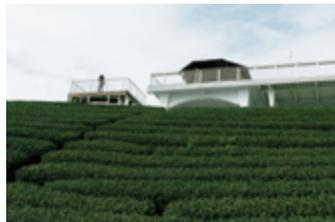
📍嘉義縣阿里山鄉 14 號 (자이현 아리산향 14 호)



스취 노을길 (石棹霞之道)

스취 (石棹) 차 재배지 근처에 위치한 이 산책길은 일출과 운해를 감상하는 명소로 유명하다. 이른 아침, 붉게 물든 노을빛이 차밭 위로 드리우는 가운데 청량한 차 향을 맡으며 계단을 오르다 보면, 한 쪽의 그림 같은 고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밖에도 차 (茶), 안개 (霧), 구름 (雲), 벚꽃 (櫻), 사랑 (愛)을 테마로 한 총 여섯 개의 산책로가 있다.

📍嘉義縣竹崎鄉 6-6 (자이현 주치향 6-6 호)



1314 전망대 (1314 觀景台)

1314는 전망대의 해발 고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중국어 발음이 ‘일생일세 (一生一世, 평생토록)’와 비슷해 연인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명소이다. 이곳에 서면 드넓은 차밭과 산골짜기가 한눈에 보인다. 수많은 차 광고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운무가 피어오를 때면 마치 선경 (仙境)에 들어선 듯하며, 해 질 무렵의 풍경은 특히 황홀하다.

📍嘉義縣梅山鄉瑞峰村 1314 觀景台 (자이현 메이산향 루이펑촌 1314 전망대)



차밭에서의 하룻밤

아리산의 차 산지는 대부분 스취 (石棹)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리적 이점 덕분에 많은 농부들이 아리산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해 숙박을 제공하며, 이곳만의 독특한 차밭 민박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중 ‘샤오산무밍 (小山霖茗, Drizzle Tea Factory)’은 고품질 아리산 우롱차 생산으로 유명한 곳이다. 창업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차밭 관리를 도왔으며, 지금의 차밭은 두 부자 (父子)가 3년여에 걸쳐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차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낸 결실이다. 봄과 가을 두 차례의 수확철이 되면 여전히 일심이엽 (一心二葉)을 손으로 직접 따고, 약한 불과 낮은 온도로 10~15 시간 동안 정성스레 배화 과정을 거쳐 찻잎 한 장 한 장의 품질을 지켜낸다.

샤오산무밍에서는 숙박 서비스도 제공한다. 차를 음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리산의 청정한 자연 풍경과 차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손수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고, 다석 (茶席)에서 차를 음미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고산차의 매력을 깊이 느껴볼 수 있다.

샤오산무밍 (小山霖茗, Drizzle Tea Factory)

📍嘉義縣竹崎鄉中和村石棹 19 之 66 號
자이현 주치향 중허촌 스취 19-66 호

🕒 09:00-18:00

📍 금원우롱 (金萱烏龍), 청심우롱 (靑心烏龍)



공식 웹사이트

개성 넘치는 찻집 속으로 다석에서 느끼는 타이완의 인정미

아리산의 웅장한 산림 풍광과 깊이 뿌리내린 차 문화가 어우러져,
이곳에는 저마다의 개성을 품은 찻집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여행길에 잠시 쉬어가며
향긋한 차 한 잔을 음미하기에도,
아리산만의 여유로운 정취를
오롯이 느끼기에도
더없이 좋은 공간들이다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곳,
뉴보보차우 (牛伯伯茶塢) 와 썬자오테차우 (山角鐵茶屋) 를 소개한다.

[a] 뉴보보차우 (牛伯伯茶塢) Uncle Niu's Tea House

자이현 (嘉義縣) 메이산향 (梅山鄉) 의 전성궁 (振興宮) 으로 가다 보면, 한쪽에 이끼로 뒤덮인 회색 호박 모양의 작은 집이 불쑥 눈에 들어온다. 이 독특한 건축물은 이곳의 주인장 뉴보 (牛伯) 가 직접 지은 것으로, 동심 가득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처음에는 사과 모양으로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통풍구 역할을 하는 꼭지를 비틀어버렸더니, 지금의 호박 모양이 되어버렸죠. (웃음)” 차 농부이자 대나무 공예 설치예술가이기도 한 뉴보는 다재다능한 멀티 플레이어이다. 그의 모든 취미와 재능이 한데 모여 바로 이 작은 찻집을 탄생시켰다. 내부는 순백의 석회 벽면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방음과 수납 기능을 겸하는 벽면의 움푹 파인 공간은 뉴보가 직접 빚은 다구 (茶具) 와 도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그의 예술적

재능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곳은 뉴보의 개인 공간인 만큼 별도의 입장료가 없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예약하면, 그가 자신의 다원에서 직접 재배한 고산차를 우려 대접해 준다. 특히 금훤 (金萱) 과 취옥우룡 (翠玉烏龍) 을 추천하는데, 단맛이 감도는 맑은 찻물이 긴 여운을 남겨, 분명 잊지 못할 품다 (品茗) 의 시간이 될 것이다.

📍 嘉義縣梅山鄉 3 號 (太和振興宮)
자이현 메이산향 3 호, 타이허전성궁
☎ 0937-351-123

[b] 썬자오테차우 (山角鐵茶屋) Tripper Tea

울창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썬자오테차우는 귀향한 청년 농부 Ray 와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내 Tara 가 함께 운영하는 찻집이다. 두 사람은 뉴질랜드 배낭여행 중 만났는데, 당시 아버지가 고향에서 보내온 차 한 봉지가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고향 장수후 (樟樹湖) 의 찻잎 향의 소환에 따라, Ray 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향 땅

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여행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집안의 차 농사와 접목해, 품다 (品茗) 체험을 알리기 시작했다. 검은 철판과 원목이 조화를 이룬 심플한 외관은 푸른 산속에서 유독 눈에 띈다. 썬자오테차우는 품다 (品茗)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찻잎의 생김새, 찻물의 빛깔, 향기,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는 과정을 통해 차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찻집 바로 앞에는 동방미인차 (東方美人茶) 의 원료인 청

심대유 (靑心大冇) 를 재배하는 다원이 있어, 직접 찻잎을 따는 체험도 가능하다. 1 층은 바 (bar) 형태의 좌석으로 꾸며져 있고, 2 층 이상은 탁 트인 시야로 산골짜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嘉義縣梅山鄉 27 號
자이현 메이산향 27 호
☎ 토·일·월 11:00-18:00
☑️ 완전 예약제, 온라인 품예약



공식 웹사이트



a	a
b	b



타이완 차의 탐험,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



타이완 차는 종류가 풍부하고, 맛과 향의 스펙트럼이 놀라울 만큼 넓다. 차 본연의 맛을 순수하게 즐기든, 다양한 식재료나 풍미와 페어링 하든, 어느 쪽이든 감탄을 자아내는 미각 경험을 선사한다. 오늘날 수많은 타이완의 셰프와 식품 분야 전문가들은 타이완 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매력 넘치고 무한한 확장성을 품은 '차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타이완 티 칵테일의 최전선

01

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 바텐더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채로운 풍미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녹차를 진 (Gin) 에 인퓨징하거나, 깊은 발효향을 품은 우롱차와 오크통 향이 감도는 위스키를 블렌딩하는 등, 차는 칵테일의 풍미 스펙트럼을 새롭게 확장시키고 있다.

2024 년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 Best Discovery' 에 선정된 [tei] by O'bond(다다아 · 밍밍차주연구실, 沓沓仔 · 明茗茶酒研究室) 는 타이베이 바 (Bar) 밀집 구역에 위치하며, 다양한 차를 베이스로 한 티 칵테일 바다. 녹차, 우롱차부터 중발효 홍차까지, 특수 기법으로 찻잎의 향, 맛, 탄닌을 추출한 뒤 각종 베이스 주류와 동양 식재료를 조합해, '사계춘 녹차 (四季春綠茶)', '청심우롱 포종 (靑心烏龍包種)' 등 차 이름을 딴 19 가지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인다.

오늘 밤 첫 잔으로 제격인 '사계춘 녹차' 는 진, 브룩라디 포트샬롯 위스키, 뽕강, 파인애플, 홍차이꿀 (紅柴蜜), 그리고 탄산으로 만들어진다. 청량한 목 넘김에 가볍고 깔끔한 맛, 거기에 은은한 기포가 더해져 말린 파인애플 향이 입안 가득 퍼지니, 티 칵테일 입문자에게 특히 추천한다.

바텐더 | 류밍제 (劉明杰)

2019 년 라 메종 코인트로 컴피티션 (La Maison Cointreau Competition) 챔피언 수상자. 타이완 차와 칵테일이 어우러진 독보적인 티 칵테일을 선보이며, 타이완 차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자매 브랜드 Wok by O'BOND 를 오픈해, 중식 퓨전 요리로 타이베이 미쉐린 가이드 1 스타를 획득했다.

[tei] by O'bond

📍 주소 : 台北市信義區光復南路 553 號

타이베이시 신이구 광푸난로 553 호

🕒 20:00 ~ 02:00, 화 · 수요일 휴무

📅 완전 예약제,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DM 으로 사전 예약

🚏 MRT 국부기념관 (國父紀念館) 역 2 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 분

글 / 편집부

사진 제공 / [tei] by O'bond, 란란차스 (冉冉茶室), COFE 츠차커피 (COFE 喫茶咖啡)



테루아를 음미하다, 프리미엄 콜드브루 티

02

맛있는 차 한 잔을 제대로 즐기려면 좋은 차잎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우려내는 방식도 중요하다. 물의 온도, 시간, 그리고 다구의 선택까지, 이 모든 요소가 차물의 풍미를 좌우한다.

타이중 (臺中) 의 란란차스 (冉冉茶室) 는 타이완의 유명 제다 장인 란다청 (藍大誠) 이 직접 설립한 곳으로, 차잎이 지닌 궁극의 풍미를 탐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란란차스는 타이완 각지 최상급 다원에서 엄선한 차잎을 냉침 방식으로 추출해, 차잎에 깃든 테루아 (Terroir) 와 섬세한 풍미를 투명한 유리병 안에 완벽하게 담아낸다.

콜드브루 티 (냉침차) 는 저온에서 장시간 우려내는 방식으로, 차잎 본연의 깔끔한 단맛과 맑은 청향 (清香) 을 온전히 끌어낸다. 란란차스의 엄격한 제조 공정 덕분에 한 병 한 병 안정적이면서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타이완 전역의 하이엔드 레스토랑과 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제다 장인 | 란다청 (藍大誠)

타이완 차 전문 명가 (名家) 출신의 저명한 제다 장인이다. 차와 요리의 페어링 (Tea Pairing) 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다수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 협업해 타이완 차의 독특한 풍미를 파인 다이닝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1+1 이 2 를 넘어서는 풍미의 시너지다.



란란차스 (冉冉茶室)

- 📍 台中市南屯區大墩路 589 號 (타이중시 난툰구 다둔로 589 호)
- ☎ 04-2320-3068
- 🕒 화요일 ~ 목요일 : 10:00-19:00, 금요일 : 10:00-19:00, 20:30-23:00 (심야 찻집), 토요일 : 9:30-17:30, 일요일 휴무
- 🚗 타이중 시내버스 '大墩家樂福 (다둔 까르푸)'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약 3 분

먹을 수 있는 타이완 차

03

타이베이 다다오청 (大稻埕) 에 위치한 COFE 츠차커피 (COFE 喫茶咖啡) 는 타이완 로컬 차잎과 초콜릿을 새롭게 결합한 이색 카페로, 차와 초콜릿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자체 초콜릿 브랜드인 COTE 는 초콜릿 업계에서 주목받는 From Bean to Bar 개념에서 영감을 얻었다. 다만 일반 초콜릿에 사용되는 무지방 카카오 고형물을 타이완 다원만의 차잎으로 대체한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 버터로 차잎의 풍미를 저온에서 천천히 장시간에 걸쳐 추출하고, 기존 초콜릿에 쓰이는 대두 레시틴 대신 타이완 토종 금주황두 (金珠黃豆) 분말을 첨가했다. 여기에 극소량의 순수 빙당 (冰糖) 으로만 맛을 내어, 차와 초콜릿의 자연스러운 밸런스를 구현해냈다.

브랜드 창립자 구웨이 (顧瑋) 는 COTE 를 " 먹을 수 있는 타이완 차 " 라고 표현한다. 타이완 차의 풍미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자, 품다 (品茶) 를 재정의한 시도다.

COTE 의 티 초콜릿 라인업 중 동방미인 (東方美人), 포종차 (包種茶), 홍옥 (紅玉) 등은 국제 초콜릿 어워드 (ICA) 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타이완 차의 테루아가 지닌 매력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있다.



식음 산지 전문가 | 구웨이 (顧瑋)

COFE 츠차커피 (COFE 喫茶咖啡) 창립자. 타이완 전역의 수많은 다원과 식재료 산지를 직접 찾다니며, 타이완 테루아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COFE 츠차커피 (COFE 喫茶咖啡)

- 📍 台北市大同區迪化街一段 248 號 2 樓
타이베이시 다통구 디화제 1 단 248 호 2 층
- 🕒 10:00 ~ 18:00 (연중무휴)
- 🚶 MRT 다차오터우 (大橋頭) 역 1 번 출구에서 도보 약 15~20 분



차를 담은 일상, 현대 다석 (茶席) 의 우아한 멋



미니멀한 감성 속에서 음미하는 차의 순수함

타이베이 (臺北) 신이구 (信義區) 골목 깊숙이 숨어 있는 '싼징주황 (三徑就荒, Hermit's Hut)' 은 차 문화와 디자인 미학이 어우러진 찻집이다. 이름은 도연명 (陶淵明) 의 《귀거래사 (歸去來辭)》 중 "세 갈래 오솔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여전히 남아 있네 (三徑就荒, 松菊猶存)" 에서 따왔으며, 다인 (茶人) 이 본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을 상징한다. 2016 년 주인장 Vicky 가 설립한 이 찻집은 '미각' 을 언어 삼아 타이완 차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공간이다.

싼징주황은 미니멀리즘과 자연을 강조한다. 하얀 회벽과 시멘트 바닥, 그리고 빈티지 가구가 조화를 이룬다.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빈티지 테이블과 의자,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다다미 좌석까지, 찻집의 모든 요소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자연과 공명하는 고요한 안식처를 빚어낸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다기 역시 대부분 유기농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곳곳에 다양한 디자인의 다구가 전시되어 있어 구매도 가능하다.

타이완 우롱, 평황단총 (鳳凰單叢), 엔차 (岩茶)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표시된 풍미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입문할 수 있다. 모든 차에는 관련 역사와 우려내는 방법이 적힌 티카드가 함께 제공되어, 타이완 차를 처음 접하는 이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차 본연의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풍미를 되살리기 위해, 싼징주황은 바 카운터에 숯불화로를 설치해 두었다. 손님에게도 작은 숯불화로가 제공되어, 찻잎을 숯불에 살짝 덥혀 습기를 날려 보내면 차의 깊은 운치가 온전히 피어오른다. 따뜻하고 은은한 차탕 한 모금, 여기에 담백하고 깔끔한 송가오 (松糕) 나 화동 (花凍) 을 곁들여보자. 싼징주황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자연, 그리고 삶과 나누는 고요한 대화의 의례가 된다.



공식 웹사이트



싼징주황 (三徑就荒, Hermit's Hut)

- 📍 臺北市信義區忠孝東路四段 553 巷 46 弄 15 號
타이베이시 신이구 중샤오동로 4 단 553 항 46 농 15 호
- 🕒 평일 13:00~20:00 / 주말 및 공휴일 11:00~20:00
- 📖 예약제 운영, Google Maps 를 통해 사전 예약 필수
- 🚇 MRT 스텡푸 (市政府) 역 1 번 출구에서 도보 약 8 분

다구(茶具)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타이완의 차 문화는 타이완의 민족만큼이나 다양하다. 타이완의 다예(茶藝)는 중국 광둥(廣東) 차오저우(潮州) 일대의 '공부차(工夫茶)'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일본 차 문화의 일부를 수용했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다구까지 더해졌다. 특히 타이완은 저마다 개성이 또렷한 차가 풍부한 만큼, 취향에 따라 다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양한 다석 조합을 즐길 수 있다.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오감을 아우르는 품미의 향연이 시작된다.



산성(山城)의 이야기를 담은 찻집

지우펀(九份)의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옛 거리 사이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된 건물 하나가 나타난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찻물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코끝을 스치는 그 익한 차 향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곳이 바로 지우펀 최초의 찻집, '지우펀차팡(九份茶坊)'이라는 것을. 산성 사이에 고즈넉이 자리한 이 공간은 다도의 미학, 예술적 정취, 그리고 레트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다. 주인장 홍즈성(洪志勝) 씨는 깊은 예술적 소양과 차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100년 역사를 품은 '웡산잉고거(翁山英故居)'를 인문 정신 가득한 품다(品茶)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찻집의 인테리어는 레트로한 감성과 디자인적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지우펀 고택 특유의 투박한 돌벽과 목조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타이완 전통 다예와 디저트, 서비스, 그리고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까지 함께 담아냈다. 지우펀차팡에서 사용하는 다구는 도예 장인에게 의뢰해 맞춤 제작한 것이다. 심지어 손님을 위해 뚜껑이 잘 떨어지지 않는 '즈화후(止滑壺, 미끄럼 방지 찻주전자)'라는 예술품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 지우펀차팡은 찻잎 선정에도 극도로 까다롭다. 리산(梨山), 아리산(阿里山), 산린시(杉林溪) 등 고해발 지역에서 재배한 타이완

고산차 중에서도 최상급만을 엄선한다. 이곳에서만은 복잡한 다도 예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의 기분과 원하는 품미를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응대 가능한 직원들이 품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순간의 분위기에 가장 어울리는 차를 골라준다.

지우펀차팡은 우수한 품질의 차를 넘어 다양한 차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다도의 의례적 아름다움부터 차와 예술의 만남까지, 손님들이 타이완 차의 정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차와 함께 안주인이 손수 개발한 우롱차 치즈케이크, 둥딩차메이(凍頂茶梅) 등 다과도 준비되어 있으니, 목조 고택의 분위기에 감싸여, 오직 지우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다회(茶聚)의 시간을 가져보자.

공식 웹사이트



지우펀차팡(九份茶坊)

📍 新北市瑞芳區基山街 142 號

신베이시 루이팡구 지산제 142 호

🕒 11:00-20:00

📍 지우펀라오제(九份老街) 입구에 도착한 후, 옛 거리를 따라 약 400m 직진. 수치로(豎崎路) 교차로를 지나 10m 더 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고택이 지우펀차팡이다.

🍵 차 한 냥(약 37g) NT\$ 600~2,200, 공간 이용료 NT\$ 120/인 별도. 개인 찻잎 지참 시 다구 이용료 NT\$ 250/인 별도.

자이

평범하고 익숙한 도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다



HERMIT & Co.

자이하면, 사람들은 아리산과 임업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자이는 예술적 기운이 충만한 도시이다. 임업의 성장은 천정보, 린위산 등 문화, 교육 분야의 인재들을 끌어들이었다. 1938년 타이완 총독부 미술전람회인 ‘부전(府展)’에서 입선했던 화가들 중 자이 출신이 20%를 차지하면서, 자이는 화가들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지만, 자이시의 문화적 역량과 미학 유전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이 시립 미술관의 개관은 충분히 상징적이다. 자이 시립 미술관의 전신은 1936년 일본 건축가 우메자와 스테지로가 설계한 담배 주류 공매국의 자이 지사 건물로, 서양식으로 지어졌다. 2019년, 인근의 오래된 창고와 함께 리모델링되어 ‘자이 시립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자인 팀은 유리 상자 형태의 현대적 구조를 활용해 기존의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회목나무와 벽돌, 식물로 어우러진 내부 공간에는 빛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현대와 과거가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방식은, 자이라는 도시의 변화가 철거 후 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 재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이 시립 미술관은 자이시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술관 주변을 거닐다 보면 새롭게 리모델링한 오래된 건축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자이의 도시 풍경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이곳의 건축물들은 화려한 외관을 추구하지 않고, 옛 모습을 온전히 살려 리모델링되었다. 나무로 된 창문과 돌 바닥, 오래된 벽면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더했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청년들은 복고풍을 억지로 내세우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오래된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장소 리스트



위 (寓)
apāto



도시에는 과거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북문역의 목조 정거장, 오래된 원형 교차로, 골목 사이의 시장과 가게들. 하지만 최근 들어 평범하고 익숙한 공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렌디한 셀렉트 숍, 작은 카페, 조용한 분위기의 바 같은 새로운 풍경들이 등장하면서 오래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자이시의 매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데 있다. 오래된 것을 지키고 새롭게 변화 시킴으로써, 오래된 공간을 다음 세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전한다. 여행자들은 거리 풍경 속에서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오늘날의 자이는 일상 공간이자 여행지로서의 감성을 동시에 지닌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도시는 곱씹어 즐길만한 매력을 지닌 곳이다.

スピード
Supiido



BAR CASA

자이 시립
미술관



Yama House



자이 시립 미술관

1937년에 지어진 담배 주류 공매국 자이 지사 건물과 인근의 창고들을 리모델링하여 2020년에 개관했다. 오래된 건축물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과거 기억과 현대 미학을 동시에 지닌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미술, 공예품, 사진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점, 카페 등 다양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자이시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 📍 嘉義市西區廣寧街 101 號
자이시 시구 광닝가 101 호
- 🕒 09:00-17:00 (월요일 휴관)

Yama House

아리산 더언야나 원주민 마을에 위치한 목조 민박이다. 나무와 린넨으로 꾸며진 공간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독채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에게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산속 풍경과 어우러진 소박한 공간은 도시의 소란스러움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요함을 선사한다. 타이완의 자연과 원주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이다.

- 📍 嘉義縣阿里山鄉多林得恩亞納社區
자이현 아리산향 뒀린 더언야나 마을



예약 사이트



HERMIT & Co.

과거 인쇄소였던 곳으로, 100년된 목조 가옥을 개조해 만든 카페다. 목조 구조와 옛 인쇄 기계를 그대로 보존하며 옛 모습에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가미했다. 핸드 드립 커피와 아이스크림, 각종 디저트와 차를 판매한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활판 인쇄 체험을 통해, 오래된 건물의 매력을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 📍 嘉義市東區成仁街 209 號
자이시 동구 청런가 209 호
- 🕒 11:00-18:00



위 (寓) apāto

자이시 동구의 한 골목 안에 위치한, 오래된 가옥을 개조해 만든 숙소이다. 50년 된 가옥을 일본의 와비사비 (Wabi-Sabi) 감성과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목재와 황동, 빈티지 소품 등을 활용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골목 깊숙이 자리한 숙소에서 여행객들은 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嘉義市東區共和路 151 號
자이시 동구 궁허로 515 호



예약 사이트



CASA

블랙 톤의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도시적이면서도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갖춘 바 (Bar) 이다. 클래식 칵테일부터 지역적 특징을 살린 특제 칵테일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자이시의 바 문화를 대표하는 곳으로 꼽힌다.

📍 嘉義市東區光彩街 132 號
자이시 동구 광차이가 132 호
🕒 화 ~ 토 19:00-01:00 / 일, 월 휴무



スピード Supiido

자이시 유적인 런우궁 (仁武宮) 옆에 위치한 목조로 된 작은 카페이다.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가 대표 메뉴이다. 핸드 드립과 에스프레소는 물론 수제 푸딩과 제철 음료도 만나볼 수 있다. 목조로 된 오래된 가옥과 사찰의 붉은 담장이 나란히 이어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타이완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嘉義市東區北榮街 50 號
자이시 동구 베이룽가 50 호
🕒 08:00-14:00 (수요일 휴무)



자이의 거리 풍경을 뒤로 하고,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자이현 타이바오시에 닿는다. 이곳의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타이바오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랜드마크는 바로 국립 고궁박물관의 남부 분관이다. 아시아 예술을 메인 테마로 삼고 있으며, 남부 지역의 예술 작품을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분관과는 차별화된 전시를 선보인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화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고, 호수 주변의 넓은 들판을 거닐며 자연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공간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타이바오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신타우 설탕 공장 저청 문화 단지'는 박물관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이현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공장 시설과 붉은 벽돌의 창고, 우편차 (五分車: 설탕 원료와 제품을 운송하던 소형 화물 열차)의 철도가 온전히 남아 있다. 여행객들은 추억의 우편차를 타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탁 트인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셀렉트숍과 디저트 카페가 들어서면서 오래된 공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저청 문화 단지는 과거로 돌아간 느낌으로 여행을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자이의 농업과 설탕 산업을 이해하기에도 좋다.



자이에서 만나는 2026 타이완 등불축제

새로운 빛의 도시 : 타이바오

(2026 타이완 등불 축제)

블랙 톤의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도시적이면서도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갖춘 바 (Bar) 이다. 클래식 칵테일부터 지역적 특징을 살린 특제 칵테일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자이시의 바 문화를 대표하는 곳으로 꼽힌다.



- 📍 國立故宮博物院南部院區、太子大道、縣治特區，以及府前廣場
국립 고궁 박물관 남부 분관, 타이즈 대로, 현청 특별 구역, 현청 앞 광장 .
- 🕒 3/3(화)-3/15(일)
- 🚏 고속철도 자이역 2 번 출구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

(국립 고궁 박물관 남부 분관)

중국, 인도, 페르시아 등 고대 아시아의 회화, 서화, 불교 예술, 도자기, 직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첨단 기술을 더한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박물관 외부에는 인공 호수와 정원, 숲길이 넓게 펼쳐져 있어, 전시와 자연 풍경이 어우러지는 한층 풍부한 경험을 선사한다.



- 📍 嘉義縣太保市故宮大道 888 號
자이현 타이바오시 구궁대로 888 호
- 🕒 화 - 금 09:00-17:00 / 주말, 공휴일 09:00-18:00 / 월요일 휴관

(산터우 설탕 공장 저청 문화 단지)

1906 년 지어진 옛 설탕 공장 부지에 조성되었다. 붉은 벽돌 창고와 기계, 철로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추억의 ‘우편차’가 문화 단지 곳곳을 연결한다. 최근에는 셀렉트숍, 디저트 카페, 전시 공간들이 들어서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삶이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 📍 嘉義縣六腳鄉工廠村 1 號
자이현 타이바오시 구궁대로 888 호
- 🕒 화 - 금 09:00-17:00 / 주말, 공휴일 09:00-18:00 / 월요일 휴관



철도와 하카 (客家) 마을이 만나는 지점



철도 기억을 따라 걷는 하카 산성 문화 산책

묘오리 구산선 (舊山線) 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철도의 기억과 하카 문화가 어우러진 느긋한 여행이 은은히 펼쳐진다. 묘오리 기관차 공원에서 시작된 여행은 증기 기관차의 황금기로 들어선다. 직접 석탄을 넣어 보고 전차대에 올라서며 철도 역사의 온기를 몸소 느낄 수 있다. 철도를 따라 성흥역 (勝興車站) 과 룡텡단교 (龍騰斷橋), 무지개터널 레일바이크 등 대표적인 명소들이 이어진다.

철도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면 싰이 (三義) 에 도착한다. 여기서부터는 하카 마을로 이어지는데 오래된 거리에서는 목각, 쪽염 등 전통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 여행자는 '뇌차 (擂茶)' 체험을 하거나, 짭짤한 훈제 삼겹살과 채소 찜빵을 맛보면서 문화의 맛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 길을 걷다 보면 새롭게 문을 연 '리마노어 미술관'을 만날 수 있는데 산속에 숨어 있는 이 공간은 자연과 현대미술이 조화되어 여행에 시적인 분위기를 더해 준다. 구산선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다. 햇빛, 사람 그리고 미학과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여정이다.



묘오리 기관차 공원

본래 묘오리 철도 문물 전시관이었으며, 2025년 재정비 후 철도 문화와 하카 특색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테마공원으로 개장하였다. 증기 기관차, 목조 객차, 대형 크레인 등 10대 이상의 클래식 기관차·객차가 전시되어 있으며, 전차대 체험 전시도 운영된다. 또한 석탄 투입 체험, 미니열차 탑승, 고양이 카페, 대형 고양이 조형물 등이 마련되어 가족 여행과 사진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 苗栗縣苗栗市英才路 130 號
묘오리현 묘오리시 잉차이로 130 호, 묘오리역 서출구 도보 약 2 분
- 🕒 월 - 일 09:00-17:30
- 🎫 입장권 100NTD는 공원내 소비 시 할인 가능.
묘오리 현민은 우대 요금 적용, 타이완철도 직원 및 일부 대상자는 무료 입장.

마오리 기관차 공원 —

숨 쉬는 철도 박물관 . 역사와 일상이 만나는 경계에 서다

여행을 시간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마오리 기관차 공원은 타이완 근대 기억으로 이어지는 창과 같다. 이곳은 철도 마니아의 성지만이 아니라, 철도 역사와 인문 지형이 조화된 풍경이자 생활과 기억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마오리시 중심부, 마오리역 서출구 인근에 자리한 이 테마공원은 2025년 새롭게 개방했다. 총면적이 약 5,700 평으로, 과거에는 마오리 철도 문물 전시관이 있던 곳이다. 수년에 걸친 보수와 전시 재구성을 거쳐 더욱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철도 문화, 하카 건축, 가족 여행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이곳은 다양한 연령과 관심사를 가진 여행자들에게 어울리는 관광지다.

마오리는 18세기부터 산간 지역을 잇는 요충지였고, 20세기에 들어 구산선이 개통되면서 북중부의 교통 허브로 자리 잡았다. 1908년 정식 개통된 구산선은 마오리 - 싼이 - 허우리 (后里)를 굽이 돌며 이어주는데, 지형이 험하고 산과 강이 얽혀있어 당시 타이완 철도 기술로써는 큰 도전이었다. 일본은 지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철교와 터널을 설계했으며, 그중 아직도 본래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공웨이쉬 터널 (功維敘隧道)과 네이셔찬 다리 (內社川橋)에서는 백여 년 전에 나뉘던 기술과 자연간의 대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공원을 대표하는 전시물 가운데 하나는 1936년 오사카자동차제조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CT152 증기 기관차다. 이 기관차는 원래 석탄 운반과 장거리 열차에 사용되었으며, 증기 시대부터 디젤, 그리고 전철화에 이르기까지 타이완이 변화하던 과정을 묵묵히 함께했다. 지금은 전시 플랫폼 위에 고요히 선 채 세월을 견뎌온 노인처럼 타이완이란 섬의 교통과 경제 발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전차대 홀’에 들어서면 실제로 가동되는 회전대가 눈에 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작동되기에 기관차가 방향을 바꾸는 엔지니어링 메커니즘을 직접 볼 수 있는데 묵직하면서도 우아한 회전의 리듬에 마치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듯 느껴진다. ‘열차 전시관’에서는 시대별 다양한 기관차와 객차들을 볼 수 있다. 타이완철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렌지색 객차와 목조 객차, 그리고 보기 드문 65톤급 증기 크레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차표 편칭기, 역무 신호기, 초기 기관사 제복 등 당시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품을 통해 거대한 역사의 맥락을 세밀히 느껴볼 수 있다.

공원 중심에 마련된 가족 체험 구역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석탄을 퍼서 넣거나 기관차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놀이를 통해 기계 작동 원리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기술을 쉽게 풀어낸, 즐거움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교육형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고양이 휴식관 (擲貓館)’과 ‘마오마오 카페 (喵喵咖啡廳)’다. 고양이와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머물고 쉬며 공유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다. 커피 향과 고양이들의 느긋한 모습이 여행에 유쾌한 여백을 더한다.

여행자를 위한 영어 병기 안내문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직원들도 친절히 도와주기에 해외 관광객에게도 매우 친화적이다. 근대 철도사에 관심이 있거나, 타이완 지역 문화와 일상의 온도가 만나는 현장을 직접 느끼고 싶다면, 기술·역사·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이 테마공원은 반드시 방문해야만 하는 곳이다.

마오리 기관차 공원에 들어서서는 순간, 살아 있는 박물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하다. 철도의 강철 레일, 증기의 잔열, 전차대의 움직임, 고양이의 골골거림이 이 산성(山城)의 노래를 만들어 낸다. 이곳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미래와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철도를 따라 걷는 길 , 산림과 하카 문화가 어우러지는 풍경 속으로 .

마오리 구산선은 한때 증기 기관차가 힘차게 달리던 역사적 철도였으며 , 지금은 산림을 잇는 문화 회랑으로 거듭나 철도 기억과 하카 인문을 연결한다 . 여행자에게 이 길은 단순히 타이완 서부의 조용한 루트가 아니라 과거로 통하는 창과도 같다 .



© pergram cafe

퍼그램 카페 沛克咖啡店

마오리 시내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카페로 , 자체 로스팅과 정교하고 섬세한 공정의 핸드드립 커피가 대표 메뉴다 . 다양한 싱글 오리진 원두와 에스프레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 미니멀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가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여행자와 커피 애호가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 수제 디저트와 가벼운 식사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마오리 문화 산책 중 휴식하기에 알맞은 장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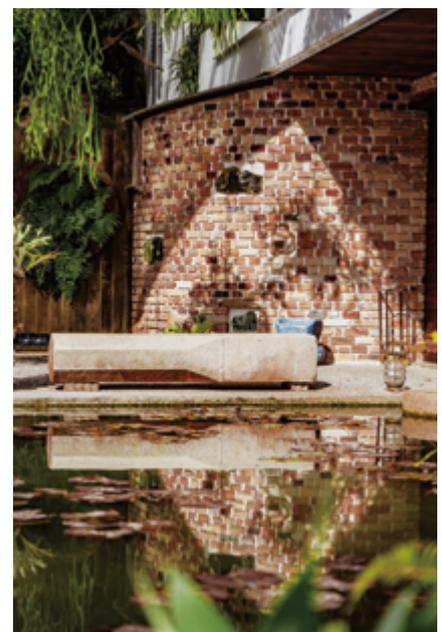
- 📍 마오리현 마오리시 중화로 112 호
(마오리역에서 도보 약 10 분)
- 🕒 월 - 금 08:30-17:00 / 토 · 일 09:30-18:00
입장권 100NTD 는 공원내 소비 시 할인 가능 .
- 📖 내부 식사 및 포장 가능 . 좌석 수가 적어 평일 방문 시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

리마노어 미술관 櫟·莊園美術館

산림 속에 자리한 현대미술 공간으로 , ‘자연과 예술의 어울림’ 을 핵심 콘셉트로 삼아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 건축 , 조경 , 명암이 조화를 이루며 , 고요한 사유와 감각적 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독특한 미술 공간이다 .



- 📍 苗栗縣三義鄉龍騰村龍騰 26 號
마오리현 산이향 룡텡촌 룡텡 26 호
- 🕒 수 - 일 10:00-17:00 (월 · 화 휴관)
- 📖 유료 입장 (일반 200NTD) . 전시 해설 및 카페 · 가벼운 식사 공간 운영 .



© 리마노어 미술관



공웨이쉬 터널 功維敘隧道

1903년에 완공된 붉은 벽돌 아치형 철도 터널로, 구산선에서 가장 상징적인 역사 유적 중 하나다. 현재는 보행 및 자전거 길로 재탄생했으며, 내부에는 조명과 음향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현대적인 감각이 공존한다.

📍 苗栗縣苗栗市水源里福星山麓
(鄰近苗栗火車站頭園區)

마오리현 마오리시 수위안리 푸싱산 기슭
(마오리 기관차 공원 인근)

🕒 상시 개방

🎫 무료 관람. 조명 연출을 즐기기 위해 낮 시간대 방문을 추천한다.

타이완 하카 문화관 台灣客家文化館

타이완 최초의 하카 문화 전문 국가박물관이다. 하카의 역사, 언어, 음식, 예술 등을 다루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 하카 공동체의 생활 지혜와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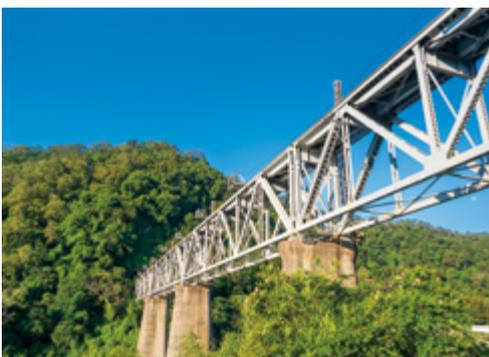
📍 苗栗縣銅鑼鄉九湖村銅科南路6號
마오리현 통뤄향 지우후촌 통커난로 6호

🕒 화 - 일 09:00-17:00 (일요일 휴관)

🎫 무료 입장. 시간대별 해설 제공 및 가족 체험 구역 운영.



© 客家委員會客家文化發展中心



타이완 철도 구산선 내사천 다리 內社川橋

내사천을 가로지르는 옛 철교로, 구산선의 대표적 공학 구조물이었다. 현재는 사람도 걸을 수 있도록 보행 데크가 마련되어 있어, 철도 역사의 흔적과 자연의 풍경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다.

📍 苗栗縣三義鄉 (靠近勝興車站)
마오리현 산이향 (성싱역 근처)

🕒 상시 개방

🎫 무료 관람. 편안한 신발 착용을 권장.



장소 리스트

© 吳志學

나이스 샷!

타이완의 최고급 골프장 네 곳을 둘러보다

글: 편집부 사진: 타이핑 골프장, 양성 골프장, 다시 골프장, 난평 골프장



01

다시 골프장 국제 대회의 성지

타오위안 다시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골프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탁 트인 뷰를 감상할 수 있다. 다시 골프장은 유러피언 투어, 오스트레일리아 투어, 아시아 투어 등 여러 국제 대회를 개최한 곳으로 유명하다. Tiger Woods, Ernie Els 등 세계적인 스타들도 이곳에서 샷을 날렸다. 골프를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국제 무대에 섰다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코스는 동쪽

코스, 중앙 코스, 서쪽 코스 세 개 코스로 나뉜다. 동쪽 코스와 중앙 코스는 지형 변화가 커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서쪽 코스는 비교적 평탄하고 조명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시원한 저녁 시간에 라운드를 즐기기에 좋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페어웨이를 걷다 보면, 가끔은 백로가 날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클럽 하우스



는 미국 컨트리 스타일로 꾸며져 있으며, 라운지, 레스토랑, 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바로 옆에는 5성급 호텔인 '다시 별관'이 있어 1박 2일 일정으로 머물기에도 좋다. 골프와 휴식을 동시에 누리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 📍 桃園市大溪區日新路 168 號
타오위안시 다시구 르신로 168 호
- 🕒 06:00-20:00
- 🏌️ 코스 정보: 27 홀. 동쪽 코스 3,750 야드, 중앙 코스 3,400 야드, 서쪽 코스 3,143 야드.
- 🚗 고속철도 타오위안역에서 하차 후, 택시로 약 40 분 소요.

02

양성 골프장 모든 것을 갖춘 휴양형 골프장

타오위안 양메이에 있는 양성 골프장을 방문한다면, 굳이 일정을 골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골프장 자체가 모든 것을 갖춘 휴양형 리조트이기 때문이다. 리조

트 내에는 전망을 갖춘 객실을 비롯해 중식, 양식, 일식 레스토랑, 수영장, 스파, 다양한 스포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가족 단위나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 좋으며, 골프 여행이 그야말로 완벽한 휴가가 되는 곳이다. 근처에 리뉘 온천 호텔 등 온천 시설도 있어 온천과 골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골프장 코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 설계자인 Robert Trent Jones Jr 가 설계했다. 경사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LPGA 대만 챔피언십과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 세계적인 명성도 높다. 각 홀마다 계절에 따

라 바뀌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어 라운드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한다.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곳에서 충분한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 📍 桃園市楊梅區楊昇路 256 號
타오위안시 양메이구 양성로 256 호
- 🕒 05:30-22:00
- 🏌️ 코스 정보: 18 홀. 총 길이 7,000 야드.
- 🚗 기차: 양메이역에서 하차 후, 택시로 약 20 분 소요.
- 🚗 고속철도: 타오위안역 또는 신주역에서 하차 후, 택시로 약 40 분 소요.



타이완에서 골프장은 더이상 골퍼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골프장은 여행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색다른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많은 골프장이 일반 사람들에게 개방되면서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푸른 필드에서 샷을 날리고 싶은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 미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골프장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타이완의 골프장은 대부분 산과 호수를 품은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다. 자연 경관과 인공 구조물이 조화를 이루어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뽐낸다. 라운드를 마치고 나면 클럽하우스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도, 편안한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골프를 치지 않더라도 골프장 안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타이완을 대표하는 최고급 골프장 네 곳을 엄선했다. 건축계 거장이 설계한 중부의 골프장부터, 북부의 리조트형 골프장, 국제 대회를 여러 차례 치러낸 역사가 오랜 골프장,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난터우의 골프장까지. 필드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타이완 골프장의 매력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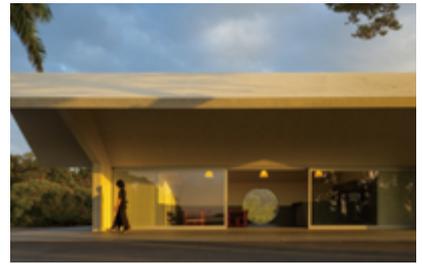
03

타이핑 골프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현지 미식 경험

타이핑 골프장은 단순한 골프장이 아닌 건축, 예술, 미식이 어우러진 복합 휴양 공간에 가깝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



Álvaro Siza 와 Carlos Castanheira 가 설계한 두 채의 클럽하우스이다. 호숫가에 자리한 시사 클럽하우스에서는 넓은 통창 너머로 자연 풍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산세를 따라 지어진 자칭 클럽하우스는 전망대와 연회장, 야외 웨딩홀 등을 갖추고 있다. Agri 레스토랑도 빼놓을 수 없다. 라운드를 하지 않아도 식사가 가능하며 타이완 각지의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국내 최고 양조 장인이 만든 특별한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타이완의 맛과 멋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 彰化縣大村鄉學府路 77 號
장화현 다춘향 웨푸로 77 호
- 🕒 05:30-18:00
- 🏌️ 코스 정보 : 18 홀 . 총 길이 7,302 야드 .

04

난핑 골프장 계절마다 달라지는 그림 같은 풍경

차를 몰고 난터우 차오툰으로 들어서면 연달아 이어지는 산맥과 탁 트인 평야가 시야에 들어온다. 그 속에 숨은 듯 자리한 난핑 골프장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 Lee Trevino 가 직접 설계한 코스는 산세를 따라 단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쪽 9 홀은 경사가 완만하고 뒤쪽 홀로 갈수록 경사가 가팔라진다. 어느 홀에 서든 산세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봄 벚꽃, 여름 오동나무, 가을 미인수(美人樹), 겨울 벚꽃까지. 골퍼들은 사계절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스페인 별장 스타일로 지어진 클럽 하우스는 중식, 양식 레스토랑, 연회장,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성 전용 탈의실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 골퍼들의 편의성도 고려했다. 레스토랑에서는 타이중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보는 야경은 특히나 아름답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음 번 타이완 여행을 준비할 때는 골프 여행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샷을 날

리는 즐거움을 넘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멋진 건축물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도 맛보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다.



- 📍 南投縣南投市鳳山路 336-1 號
난터우현 난터우시 평산로 336-1 호
- 🕒 07:00-17:00
- 🏌️ 코스 정보 : 18 홀 . 총 7,065 야드 .
- 🚗 고속철도 타이중역 또는 장화역에서 하차 후, 택시로 약 30 분 소요 .

놓칠 수 없는 맛

가장 맛있는 오리 요리

겨울로 접어들면, 치러우 (騎樓, 아케이드) 아래 테이블과 의자가 깔리고 숯불 화로가 놓인다. 사람들은 토기 냄비 주변에 둘러앉아 뜨끈한 장무야 (薑母鴨) 를 즐긴다. 진한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면 따뜻한 온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지면서 추위가 눈 녹듯 사라진다. 장무야는 타이완의 겨울 거리에서 가장 친숙한 풍경 중 하나이고, 오리고기는 타이완의 식탁 위에서 닭고기 못지않은 인기 식재료다.



길거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오리구이 전문점부터, 각종 루웨이 (滷味) 요리까지, 오리고기는 이미 타이완 식문화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클래식한 베이징덕 파전쌈 외에도, 오리구이 식당에서는 오리 뼈를 춘장과 고추, 쥬청타 (九層塔, 타이완 바질) 를 곁들여 볶아 또 다른 요리로 즐기는 이아얼츠 (一鴨二吃, 오리 한 마리로 두 가지 요리) 방식이 발전되었다. 또한 루러우판 (滷肉飯) 이나 지러우판 (雞肉飯) 처럼 흰밥 위에 오리 가슴살 슬라이스나 잘게 찢은 오리 고기를 듬뿍 올리고, 오리 찹자와 간으로 끓여낸 사수이탕 (下水湯) 을 곁들인다면, 가장 따뜻하고 든든하면서도 서민적인 점심 한 상이 완성된다.

오리고기는 향긋하게 기름지면서도 부드럽고 느끼하지 않아, 진득한 닭고기보다 한층 깔끔한 맛을 낸다. 숯불에 바로 구워 내든 약재와 함께 뭉근히 끓이든, 조리법에 따라 전혀 다른 풍미를 드러낸다. 이에 본고에서는 타이완을 대표하는 오리 요리 명가 세 곳, 타이베이 용도주루 (龍都酒樓), 싰충 (三重) 의 바웨이 장무야 (霸味薑母鴨), 가오슝 (高雄) 의 야러우전 (鴨肉珍) 을 엄선해, 한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오리 요리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가오슝 (高雄)

야러우전 (鴨肉珍) (야러우판 / 鴨肉飯)

가오슝 염청구 (高雄鹽埕區) 에 위치한 야러우전 (鴨肉珍) 은 65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노포맛집이다. 부담 없는 가격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야러우판 (鴨肉飯)^[a] 으로 유명하며, 현지 단골은 물론 여행객들까지 줄을 잇는 인기 맛집이다. 야러우전의 시그니처 메뉴는 단연 야러우판이다. 큼직하게 썬 오리고기를 뜨거운 흰밥 위에 올리고, 특제 간장 소스와 오리 기름을 끼얹으면 고소한 오리 향이 밥알 사이로 은근히 스며들어 진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깊고도 깔끔한 맛이 난다. 단골 미식가들은 여기에 샤수이탕 (下水湯)^[b] 을 곁들이곤 한다. 은은한 생강 향이 감도는 담백한 국물에 오리 염통, 간, 모래집, 창자 등 다양한 내장이 어우러져, 내장 마니아라면 틀림없이 반할 조합이다. 혹시라도 아쉽다면, 오리 다리살^[c] 한 접시를 더 주문하거나, 야쉐가오 (鴨血糕, 찹쌀 오리 선지) 를 추가해 보는 것도 좋다. 무엇을 선택하든 결코 실망하지 않는 완벽한 구성이다.

오랫동안 오리고기 요리에 주력해온 야러우전은 2022 년 미쉐린 가이드의 '빚 구르망'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오슝 야러우판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가오슝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야러우전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 가오슝의 맛과 서민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필수 방문지다.



- 📍 高雄市鹽埕區五福四路 258 號 (가오슝시 염청구 우푸쓰로 258 호)
- 🕒 10:00 부터 20:20 까지, 화요일 휴무

신베이 싹충 (新北三重)

바웨이 장무야 (霸味薑母鴨)

겨울로 접어든 타이완의 맛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음식은 바로 뜨끈한 장무야 (薑母鴨) 다. 바웨이 장무야 (霸味薑母鴨) 는 타이완 전역에 체인점을 두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신베이 시 싹충 (新北市三重) 에 위치한 본점이 가장 유명하다. 매년 가을에 추위가 짙어지면 영업을 시작한다. 솥으로 가열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국물에 깊게 배어든 숯불 향이 맛을

한층 돋운다.

묵은 생강, 쌀술, 참기름으로 푹 끓여낸 국물은 맛이 깊으면서도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다. 오리고기는 끓일수록 맛이 더욱 깊어지며, 더우피 (豆皮^[a], 두부피), 미쉐 (米血^[b], 찹쌀 선지), 버섯류 등을 추가하면 더 다양하게 맛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시그니처 메뉴인 오리고기 완자^[c]와 살짝 데쳐서 아삭하고 쫄깃하게 즐기는 오리 창자^[d]는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겨울철의 싱싱한 양배추와 숙갓 역시 장무야에 빠질 수 없는 구성이다. 든든한 주식을 찾는다면 시그니처 메뉴인 마유멘선 (麻油麵線^[e], 참기름 국수) 을 특히 추천한다. 부드러운 소면에 고소한 참기름 양념이 골고루 스며있어, 맛의 여운이 단순하면서도 깊다.

타이완 사람들에게 장무야는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다. 낮고 작은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뜨거운 국물을 함께 즐기는, 몸을 녹일 수 있는 겨울날의 상징이다.



📍 新北市三重區重陽路一段 100 號 (신베이시 싹충구 충양로 1 단 100 호)

🕒 10:00 부터 20:20 까지, 화요일 휴무





타이베이

용도주루 (龍都酒樓) (오리구이)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광둥식 오리구이를 논할 때, 미식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단연 용도주루다. 이곳은 지방이 풍부한 오리를 엄선해 건조한 뒤 설탕을 입히는 공정을 거쳐 숯불 화로에서 섬세하게 구워낸다. 덕분에 오리 껍질은 고소하면서도 얇고 바삭하며, 속살은 육즙으로 가득하다.

용도주루의 하이라이트는 테이블 옆에서 펼쳐지는 즉석 카빙 서비스다. 숙련된 직원이 오리 살코기를 한 점씩 떠준다. 취향에 따라 살코기 한두 점을 갖 썬 전병 위에 올려 춘장을 바르고 파채를 얹어서 말아 먹으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바삭한 껍질의 기름이 혀끝에서 먼저 녹아내린다. 이어 껍질의 바삭함과 전병의 부드러움, 살코기의 감칠맛, 그리고 춘장의 달콤함과 파채의 알싸함이 입안에서 한데 어우러진다. 오리구이를 먹는 방법 중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식이다.

살을 발라내고 남은 오리 뼈는 오리탕이나 오리죽으로 즐길 수 있다. 그중 오리 뼈 육수와 쌀을 푹 끓여낸 오리죽은 특히 맛볼 가치가 충분하다. 섬세한 육향이 부드러운 흰 죽 사이에 스며들어, 식사 후 마무리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 📍 台北市中山區中山北路一段 105 巷 18-1 號
타이베이시 중산구 중산북로 1 단 105 항 18-1 호
- 🕒 점심 11:30-14:30, 저녁 17:30-21:30



장소
리스트

타이완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것

타이완에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내가, 귀국하지 않고 한해 한해 체류기간을 늘려가자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안 돌아올 거야? 타이완, 뭐가 그렇게 좋아?”

직장생활을 한참 하던 서른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에, 타이베이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일한 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하는 일에서 능력이 모자란 것 같았고 도약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미련이 남았던 중국어 공부를 끝까지 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1년을 기약했던 타이베이 체류가 7년으로 늘어났다. 1년 후 연수를 마치면 이전 삶으로 복귀해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인생의 경로를 대폭 수정하게 된 것이다. 대체 왜?



형소진
콘텐츠업 종사자.

어릴 적 중화권 대중문화를 즐기며 자란 '홍콩키즈'.
대만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현재는 한국에서 콘텐츠 관련 일을 한다.
한국과 대만을 오가는 이중생활자로, 지속가능한 두 집 살림을 꿈꾼다.

[a]



[b]



그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타이완의 무엇이 그렇게 좋나.

이에 대답을 하려면 먼저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지옥철과 긴 통근시간. 아침식사는 건너 뛰거나 샌드위치 같은 걸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 먹는다. 퇴근하고 오면 이미 주변은 칙흑이다. 야근이라도 있는 날이면 평일 저녁의 삶이 통째로 날아간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보낼 시간(시간은커녕 에너지도 고갈이기에)은 주말로 미뤄지곤 한다. 여기서 건강을 위해 헬스나 요가라도 다닌다면, 다들 갓생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런 생활만 알던 내게 타이완은, 한국적어도 서울에서는 없는 '일상의 여유'가 분명한 곳이었다. 조찬을 먹어 여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웃어주고 길거리에서 머뭇거리는 이방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여유, 동네 공원을 산책할 여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제 3의 일에 에너지를 쓸 여유... 내가 당시 느꼈던 한국과 타이완의 일상이 주는 대비감은 어마어마했다. 나는 이런 여유에 서서히 스며들었고 타이베이에 살며 매혹당했다. 나는 타이완을 일상이 아름다운 곳, 일상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느꼈다. 서울에서는 시간이 스쳐가지만, 여기서는 '잘하면' 그 시간들을 음미하고 포착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타이베이의 식당, 카페, 도서관, 공원, 강변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채집해두었다. 아직까지

도 그 시간들이 기억에 생생하다.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빛 바래지 않고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일상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어떤 강렬한 일탈적 경험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히 쌓아가는 일상이니까.

타이베이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타이완 사람들의 삶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양국의 삶을 두루 살피며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그 윤곽을 잡아갈 수 있었다. 언젠가 연말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대해 진지하게 정리해본 적이 있다. 그 조건은 이러했다. '날씨가 따뜻한 곳, 과일이 저렴하고 다양한 곳, 타인에게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곳, 산 바다가 가깝고 풀 나무 새 동물이 일상 속에 있는 곳,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 갈 수 있는 곳, 일, 휴식의 밸런스가 맞는 곳'. 사실 나의 이 6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바로 타이베이였다. 타이베이에 살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걸 좋아하며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코로나 시기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 사이 서울에는 일상적 여유가 생겼을까.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사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7년간의 타이완 생활이 없었더라면 결코 몰랐을 매력들이었다. 그 중 하나가 전에는 싫어했던 겨울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서울의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가져오는 멜랑콜리함과 기분 변화는 사계절이 있는 한국 사람들에만 보이는 삶의 원동력이다. 전보다 회식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은 근무 시간이 길고 격무의 연속이다. 그런 과정에서 동료들과 전우애에 가까운 감정도 생긴다. 타이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제 내게는 한국과 타이완 두 나라가 좌심방 우심방처럼 나란히 내 하루하루를 추동한다. 앞으로 내 삶이 타이완과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a] 내가 좋아하는 타이베이 거리 풍경에는 반안트리가 빠지지 않는다. 질서 있게 주차된 알록달록한 스쿠터들도 사랑스러운 동네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큰 몫을 한다.

[b] 타이베이에 살면 풀과 꽃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맘껏 할 수 있는데, 실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 타이완 직항 완전 정복

스타일리시한 여행자를 위한 공항 선택 노하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타이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항공편도 대폭 늘어나, 양국 간 하늘길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타이완 북부에서 남부, 그리고 동부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공항에서 한국 직항편이 운항 중이다. 화롄 (花蓮)- 인천 노선이 새롭게 개통된 지금, 한국-타이완 직항 노선과 공항 접근 교통편, 그리고 각 지역에서 놓칠 수 없는 여행 테마까지 상세히 안내하며, 순조롭고도 현지 감성 가득한 여행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적지에 맞는 공항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여행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여정 전체에 현지의 특색과 정취를 더할 수 있다. 다가오는 타이완 여행, 새로운 취향지에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서울 김포 -

타이베이 송산공항 (TSA)



송산공항은 독보적인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려는 여행자에게 최적의 선택지다.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단일 노선만 운항하지만, 항공편이 촘촘하게 편성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송산공항에 도착해 바로 연결된 타이베이 MRT 원후 (文湖) 선을 타면, 단 15 분 만에 트렌드의 중심인 신이 (信義) 상권이나 문화 예술 감성 가득한 중산 (中山) 구에 닿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 덕분에 송산공항은 ‘도심에서 즐기는 주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낮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중산구 골목 탐방을 시작하고, 오후에는 송산문창원구 (松山文創園區) 에서 전시와 공연을 감상한 뒤, 밤에는 타이베이 101 을 둘러싼 마천루의 야경과 활기 넘치는 나이트라이프에 흠뻑 빠져보자. 도시의 활력을 느끼고 싶은 여행자라면, 송산공항을 통해 짧지만 강렬한 타이베이 여행의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타이완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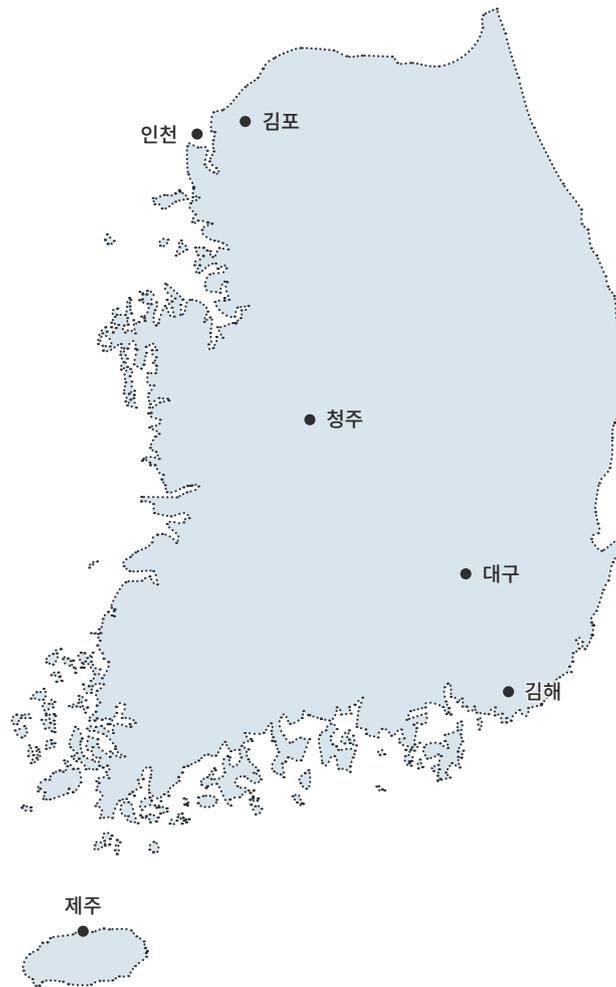
서울 김포 / 인천, 부산 김해, 대구, 제주, 청주 -

타이베이 타오위안국제공항 (TPE)



타오위안 (桃園) 국제공항은 타이완 최대의 국제 관문이다. 다양한 항공편과 유연한 스케줄을 자랑하며, 공항 철도 (MRT) 나 고속철도 (HSR) 를 이용하면 타이베이는 물론 서부의 주요 도시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타오위안공항은 타이완을 처음 찾는 여행자가 북부 지역을 깊이 있게 탐방하려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다. 역사의 보물을 간직한 국립고궁박물관 (故宮博物院), 겹겹이 쌓인 산골 마을 지우펀 (九份) 의 신비로운 산성 (山城) 풍경, 그리고 레트로 감성 가득한 다오청 (大稻埕) 의 골목길까지. 타이완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이 클래식한 명소들을 타오위안공항을 거점으로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서울 인천, 제주 —
타이중공항 (RMQ)



자연 풍경과 도시의 편리함을 함께 누리고 싶다면, 인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서 직항으로 연결되는 타이중 (台中) 칭취안강 (清泉崗) 공항이 중부 탐방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다. 낮에는 르웨탄 (日月潭) 호숫가를 거닐며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하고, 해 질 무렵에는 가오메이 (高美) 습지에서 고요한 석양을 바라보고, 밤에는 평자 (蓬甲) 야시장에서 현지 먹거리를 맛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타이완 중부 여행은 이토록 편안하고 다채로워진다.

서울 김포 / 인천, 부산 김해, 제주 —
가오슝공항 (KHH)



타이완 남부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겨울철 피한 (避寒) 여행과 해양 액티비티에 특히 적합하다. 가오슝 (高雄) 보얼 (駁二) 예술특구에서는 해항 도시 특유의 인더스트리얼 감성이 빚어낸 예술적 매력을, 타이난 (台南)의 골목길에서는 고도의 고즈넉한 정취를 엿볼 수 있다. 열대 섬의 낭만을 원한다면 핑둥 (屏東) 샤오류추 (小琉球) 로 떠나 스노클링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이어 주는 곳이 바로 가오슝 샤오강 (小港) 공항이다. 공항에서 MRT 빨간선을 타면 약 20분 만에 도심에 닿을 수 있어, 남부 여행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

서울 인천 —
화롄공항 (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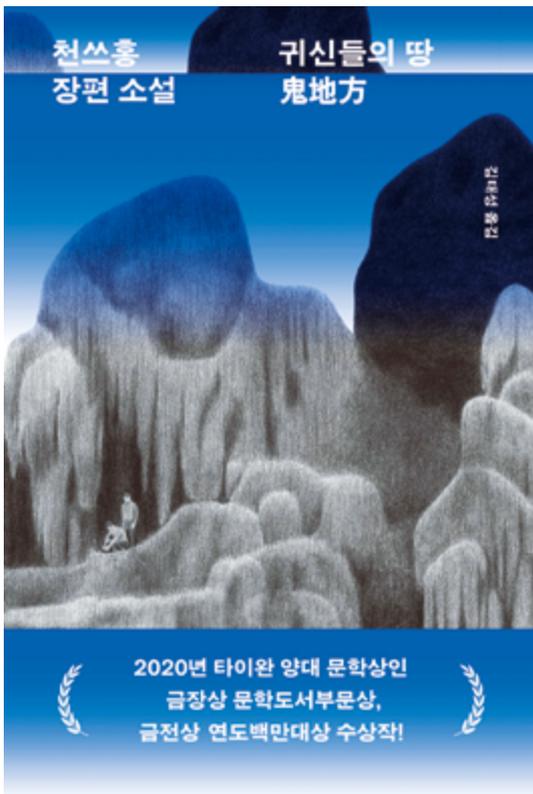


화롄 (花蓮) 공항은 시내 이동 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타이완 동부의 웅장한 산맥과 해안 절경으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번잡한 도심을 벗어난 고요한 정취가 여행자를 맞이한다. 이 지역의 매력은 바로 ‘산과 바다가 선사하는 힐링 여행’에 있다. 아찔한 절벽과 끝없이 펼쳐진 해안선이 빚어내는 장관, 그리고 매년 타이완 동해안을 무대로 열리는 대지예술축제 (大地藝術節) 가 어우러져 자연과 예술,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완행 열차만 서는 작은 마을 : 타이완 작가 천쓰홍의 『귀신들의 땅』을 찾아서

‘ 사람들은 어째서 집으로 돌아갈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가 돌아온 건 구원을 위해서도, 참회를 위해서도, 답을 찾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는 없었다. 집은 그를 숨 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다.’

——『귀신들의 땅』 중



이 한국 독자들에게 환영을 받은 이유는 개성적인 문체 때문만은 아니다. 작품 속 그려지는 남존여비 사상과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한국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고,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은 ‘상견니’ 속의 아늑한 타이난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단수이 강변도 아닌, 장화현 용징이다. 급행 열차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느린 완행 열차만이 멈춰 서는 작은 마을. 소설의 성공에 힘입어 용징은 이제 타이완 독자뿐 아니라 해외

을 떠난 뒤 살인을 저지르고 출소한 후 갈 곳이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간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따라 의미 있었던 장소들을 다시금 찾는다. 독자들도 그를 좇아 수로와 사당, 좁은 골목을 지나 삼합원과 폐허가 된 수영장예까지 이른다. 소설 속 건물과 풍경이 실제 눈 앞에 펼쳐질 때, 그것들은 지극히 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마법처럼 느껴진다. 다 허물어진 담장에도 이야기가 서려 있는 듯하다. 사실과 허구, 평범함과 기이함, 적막감과 활기참…….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용징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듯하다.

2024년, 타이완 작가 천쓰홍의 장편소설 『귀신들의 땅』이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판매 부수 1만 부를 돌파하며 한국 출판 시장에서 타이완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작가들이 넘기 어려운 유럽과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작품

문학 팬들에게도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되었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나 ‘갯마을 차차차’처럼 주인공은 대개 인생의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간다. 『귀신들의 땅』 주인공 역시, 고향

BOOK AUTHOR

천쓰홍 陳思宏



타이완 작가. 남성. 현재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타이완 중부 장화현 용징향에서 성장했다. 여러 권의 산문집과 단편 및 장편 소설을 출간했으며, 타이완 최고 문학상으로 꼽히는 금정상(金鼎獎)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에 출간된 『귀신들의 땅』은 여름 삼부작 중 첫 작품으로,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용징현 바더 골목에서 태어나 후렌로 의 타운 하우스에서 자랐다.’



《귀신들의》
소설 속 명소 탐방!

SPOT ① | 용징 기차역

완행 열차만 정차하는, 역무원도 없는 작은 역이다. 역 앞으로는 도로가 지나고 뒤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다. 높은 건물과 도시 풍경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

- ☞ 彰化縣永靖鄉崙子村永崙路 25 號
장화현 용징향 룬쯔촌 용론로 25 호
- 🚆 고속철도 : 고속철도 장화역에서 하차 후, 급행 버스 7 번으로 환승하여 용징역에서 하차.
(고속철도 승차권 소지 시, 급행버스 무료 이용 가능.)
기차 : 완행열차를 타고 용징역에서 하차.

SPOT ② | 용싱 수영장

운영이 종료되고, 하얀 타일과 페인트가 벗겨진 미끄럼틀만 남아 있다. 소설 속 한 장면이 시간 속에 그대로 멈춘 듯하다.

- ☞ 彰化縣永靖鄉永興路三段
장화현 용징향 용싱로 3 단
우측 첫번째 골목 안 (현재 미운영, 관람만 가능)

SPOT ③ | 용징 야시장

월요일에만 열리는 용징 야시장에서는 유명한 마오벤미가오 (廟邊米糕) 를 맛볼 수 있다. 장화에 왔으니 베이더우러우위안 (北斗肉圓) 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작은 노점들은 용징 초등학교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러우위안은 먼저 찌낸 뒤 다시 튀겨 걸은 바삭하고, 속은 짭 찬 고기와 아삭한 죽순이 어우러져 풍부한 식감을 선사한다. 용징 사람들에게 맛집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웨이지뉴러우몐 (魏記牛肉麵) 은 늘 빠지지 않는다. 소뼈로 우려낸 국물은 진하고 깊으며, 고기는 육즙이 풍부하다. 여기에 썬차이 (酸菜) 를 곁들이면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다. 라오동먼지러우판 (老東門雞肉飯) 역시 용징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음식이다. 용징의 옛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다 보면, 용안궁과 거리 양옆에 늘어진 1910-20 년대의 오래된 건축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용징의 옛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 彰化縣永靖鄉東門路 16 號
장화현 용징향 동먼로 16 호

마오벤미가오 (廟邊米糕)

- ☞ 彰化縣永靖鄉永靖街 71 號
장화현 용징향 용징가 71 호
- 🕒 화, 수, 목 휴무 / 그 외 15:00-22:00

용징 베이더우러우위안 (北斗肉圓)

- ☞ 彰化縣永靖鄉東門路 220 號
장화현 용징향 동먼로 220 호
- 🕒 09:00-14:00, 연중무휴.

웨이지뉴러우몐 (魏記牛肉麵)

- ☞ 彰化縣永靖鄉福德巷
장화현 용징향 푸더 골목 안
- 🕒 월 - 토 11:00-14:00, 16:00-19:00
일요일 휴무

라오동먼용징지러우판 (老東門永靖雞肉飯)

- ☞ 彰化縣永靖鄉永東村東門路 244 號
장화현 용징향 용동촌 동먼로 244 호
- 🕒 11:00-20:00
(자세한 휴무일은 페이스북 페이지 참고)



용싱궁 앞 광장에서는 축제가 자주 열렸다.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가, 산산귀왕에게 절을 올리게 하곤 했다.

용싱 수영장, 그곳은 내가 수영을 배운 곳이다. 그곳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경악했다. 물이 전부 말라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많은 사당들 가운데 가장 가 보고 싶었던 곳은 청자오마 사당이였다. 어머니께서 염불을 외우던 사당이었고 영화를 볼 수 있던 사당이였으며 돼지를 잡던 사당이였다.

SPOT ④ | 청자오마궁 城腳媽宮

웅장한 사원은 아니지만, 순박한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용징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해질 무렵에는 귀신과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키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彰化縣永靖鄉永安街 71 號
장화현 용징향 용안가 71 호
- 24 시간 개방



SPOT ⑥ | 수혼비 獸魂碑

과거 도살장이 있던 곳이다. 도살장이 문을 닫은 뒤에도 밤마다 돼지 우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수혼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승려를 청해 돼지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 彰化縣永靖鄉永安街 73 號
장화현 용징향 용안가 73 호



SPOT ⑧ | 용안궁 永安宮

용징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있다. 1813 년에 세워진, 용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짙은 색 편백나무로 된 외관과 기둥, 대들보 위의 금박 장식 그리고 현판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사평안 (謝平安)'이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등롱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왔다.

- 彰化縣永靖鄉永東村永靖街 75 號
장화현 용징향 용동촌 용징가 75 호

▲ 사평안 (謝平安) 이란?

농사를 짓던 시절 가을 수확이 끝난 후 치러졌던 의례로 신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통 음력 10 월 15 일 전후로 치러졌다. '사평안'에는 평안에 감사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 가지 음식과 술을 바치고, 신을 위한 연극 공연도 한다. 최근 용징현에서는 이 전통을 계승하여 사평안 축제를 열고 있다. 전통 제의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마련된다.



SPOT ⑤ | 용징 벽화 永靖故事牆

2015 년, 용징 출신 화가 장홍밍 (蔣鴻銘) 은 용징의 옛 정취를 보존하고자 용안가의 한 버려진 담장에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철거된 옛 극장의 뒷무대 자리다. 극장은 사라졌지만, 벽화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 彰化縣永靖鄉永安街 19 號
장화현 용징향 용안가 19 호



SPOT ⑦ | 두아오춘과 이춘 골목

삼합원과 사합원은 타이완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가옥 형태이다. 이춘 골목에는 약 450 채의 삼합원이 모여 있어, 타이완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밀집도를 자랑한다. 이춘 골목을 벗어나면 두아오춘으로 이어진다. 두아오춘은 원예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장소 리스트

사랑의 강

愛河

李敏勇

도시의 강, 한때 가오슝천이라 불렸던 곳
햇살 아래 유유히 흐른다

항구는 오가는 배들을 삼키고 뱉어내고
물결은 작은 배들이 오갈 때마다 은빛으로 반짝인다

높은 빌딩의 창은 거울이 되어
흐르는 강물의 마음을 비춘다

낙시대를 드리운 이의 마음은 물고기가 아니라
흐르는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양안을 잇는 다리들 사이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모습이 물결 위로 떠오르고
박물관의 기억들은

슬픈 선율을 빚어낸다

연인들이 노젓던 풍경은 어디 가고

유람선의 소란스러움

강변을 달리는 이들의 숨결만 가득하다

잃어버린 꿈, 반짝이는 물결

항구 도시는 네온사인처럼 반짝이며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흘러가지 않는다

城市之河昔稱高雄川

在陽光下流淌

港口吞吐往來的船隻

河面小艇的穿梭水波閃閃

高樓窗景形成鏡像

浮現流水的心事

垂釣客的心思與其說是魚群

不如說流動的時光

一座一座橋連接河岸兩端

過去與現代不同的形影顯像成為歷史

記憶在博物館裡

釀造詠嘆調的悲傷旋律

戀人手划小舟的情景不再

觀光船遊客成群眾聲喧嘩

慢跑人沿河邊步追逐

失落的夢, 水流的光影

港都風華閃爍霓虹

在流水中消褪不去

李敏勇 이민용

타이완 평등 출신 . 1947년 가오슝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는 역사를 연구했다. 현재는 타이베이에 거주하고 있다. 한평생 문학을 지업으로 삼았으며, 일찍이 시간행물 《삿갓》 편집을 주관했고, <타이완 문예> 사장과 <타이완 문예 교류회> 회장을 맡았다. 《구름의 언어》, 《어두운 밤》, 《진혼가》, 중국어-영어 대조 시선 《사모와 애수》 등의 작품과 산문, 소설, 문학평론과 사회평론집 등 90여 권을 출판했다. 우용평평론상, 우주류신시상, 라이허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제 11회 국가문예상 수상, 2022년 제 4회 행정원 문화상을 수상했다.



누구나 카라오케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는 곳 : 가오슝 쩡잉 용호탑 (龍虎塔)



FOUNTAIN 신활수 (新活水) 에 대해

《FOUNTAIN 신활수 (新活水)》의 각 호의 주제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내용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현상을 깊이 탐구하고 발굴하며 지역, 영역, 세대를 뛰어넘은 정신가치를 강조한다. 강렬한 시각적 미학 요소로 잡지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며 문화적 대화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장 가기 어려운 곳은 으레 외딴 섬일 거라 생각했으나, 뜻 밖에도 가오슝이 한 수 위였다. 모든 것이 'Blackpink in your area' 때문이었으니. 어렵사리 몸을 실은 고속철도 자유석은 두 시간 반 내내 콘서트 스탠딩 구역과도 같았지만, 마침내 쥐잉(左營)에 도착할 수 있었다. (편집자 주: 당시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가 가오슝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이로 인해 고속철도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용호탑은 고속철도 쥐잉역 근처의 연지담(蓮池潭)에 자리하며, 차량으로 15 분이면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그야말로 'How you like that' 일 것이다. 자전거 애호가이긴 하지만, 끊어오르는 듯한 태양 아래 고생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당연히 택시를 선택했다. 그러나 연지담의 크기를 만만하게 보고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내리는 바람에 결국 나는 호수 주변을 한참이나 걸어 다녀야 했다.

연지담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오른쪽은 웨이크파크로 활용되고 있으며, 왼쪽에는 종교 시설들이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다. 아마도 명·청 시대에 바다를 건너 타이완으로 넘어온 개척민들이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남긴 문화일 것이다. 쥐잉 지역은 종교 시설의 밀집도가 유난히 높는데, 여러 사원의 맞은편에도 보탑(寶塔)이 랜드마크처럼 있다. 특히 용호탑 건립은 연지담 기슭에 자리한 자제궁(慈濟宮)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호탑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 마리의 용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구곡교(九曲橋) 끝에 나란히 서 있는데 처음에는 '용문(龍門)으로 들어가 호구(虎口)로 나오는' 방식이 사찰을 드나드는 전통에서 유래했다고 짐작했다. 하지만 자제궁을 참배하고 나서야 보생대제(保生大帝)를 모시는 민간 신

앙 풍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의신(醫神, 혹은 의사의 수호신)인 보생대제는 예로부터 '용의 눈을 찌고, 호랑이의 목구멍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용호탑을 드나들 때는 반드시 용의 목구멍으로 들어가 호랑이의 입으로 나와야만 재앙을 소멸하고 액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참배 의식이 생긴 것이다. 이는 신화적 의미를 공간적인 동선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용호탑(龍虎塔) 외에도 연지담(蓮池潭) 근처에는 관음기룡(觀音騎龍), 춘추각(春秋閣), 오리정(五里亭), 북극현천상제(北極玄天上帝) 등 거대한 보탑(寶塔)들이 더 있다. 비록 각기 떨어져 있지만, 모두 올라가 볼 가치가 충분한 곳들이다. 특히 호수 중앙에 자리한 오리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노래방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과 같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쑥 떠올릴 수도 있다. 시간이 남다면, 근처 귀마오 커뮤니티(果貿社區)를 여행 일정에 추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 주택은 홍콩의 괴수 빌딩이라고 불리는 해산루(海山樓)에 비견될 만큼 인상적이다. 또한 쥐안촌(眷村)의 다채로운 음식 또한 놓칠 수 없는 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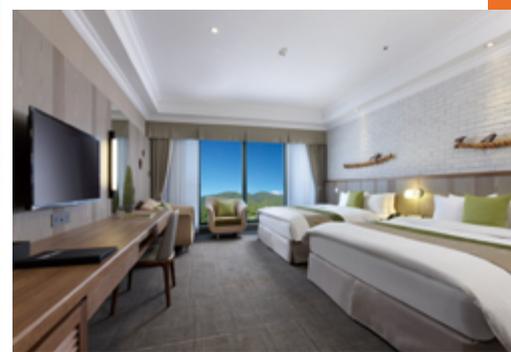
SVA 뉴욕 시각예술학교 (School of Visual Arts) 사진 및 영상 예술 석사. 편집자를 거쳐 현재 사진, 영상 디자인 및 제작 총괄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Ongoing Project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Instagram : ongoing_project



- ◆ 각종 특색 있는 테마룸
- ◆ 2,000평 이상의 온천 파크
- ◆ 실내외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
- ◆ 풍부한 생태계로 자연과는 공생을, 지역과는 상생을

天 籟 陽明山
 渡假酒店
 Yangmingshan Tien Lai Resort & Spa



양명산 국가풍경구에 인접해 푸르른 양명산의 산악, 대둔산의 백황천맥, 금산의 로컬 문화 등 유일무이한 환경을 갖춘 대만 최대이자 최고급 온천 리조트입니다.

陽明山
天 籟
 渡假酒店



단체 예약 및 관련 문의

문의 | 02-2392-2777 예약 전화번호 | 02-2408-0000 타이베이 사무소 영업팀



환승 입국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행사 기간: 2025년 11월 1일 정오 12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행사 시간은 모두 대만 현지 시간(UTC/GMT +08:00)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 자격



타오위안 공항에서 환승하고, 대만에 입국하여 24시간 이내에 체류하는 비중화민국 여권 소지자.



◎ 사용 범위



소비 쿠폰은 타오위안 국제공항 내의 협력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협력 업체 목록은 행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타오위안 공항 여행자안내센터
T1, T2 (제 1, 2터미널)
수령 시간: 매일 07:30~22:30



1. 등록: 먼저 행사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여행자가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2. 쿠폰 수령: 입국 후 타오위안 공항의 여행자 서비스 센터에서 여권과 다음 항공편 탑승권을 제시하면, 신 대만 달러 600원의 소비 쿠폰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TAIPEI 2026 台北燈節 LANTERN FESTIVAL

2.25 (수요일) → 3.15 (일요일) 화보 공원 시멘딩



 觀光傳播局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Tourism

廣告